



꿈의숲 아트센터가 올해로 개관 6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Piano & Strings〉라는 주제로
국내외 최고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와 함께하는 스트링 챔버와 첼로,
바이올린과 기타의 조우, 그리고 네개의 손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인 내역

- 10%** 세종유료회원, 꿈의숲 편익영수증할인쿠폰 소지자,
문화릴레이 (이전 꿈의숲 개관 공연 유료 관람객)
 - 15%** 4인 가족, 공연예술계 종사자
 - 5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모든 할인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연 관람 안내

- 원활한 공연을 위해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지정석으로의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가능 연령 미만의 아동은 (미취학 아동) 티켓이 있어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만 티켓 취소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일요일 공연은 토요일 11시까지 가능)
- 취소 날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1인 1티켓 지정좌석제로 아동을 무릎에 앉히고 관람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여 매우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 당일 공연 티켓을 제시하시면 서문에서 사용가능한 1시간 20분 주차할인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2층 안내데스크)
(공연 종료후 10분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연 시작 전에 받아주십시오)
-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면 예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1,000원/장, 콜센터 2,000원/장)
-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동반하여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꿈의숲 아트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및 버스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아래 버스 승차 후 북서울 꿈의숲 서문 하차
2번 출구 : 강북 05번, 3번 출구 : 1124번
※꿈의숲 아트센터는 북서울 꿈의숲 서문이 더 가깝습니다.



주최 세종문화재단 꿈의숲아트센터 티켓 전석 2만원 입장 초등학생 이상
문의 꿈의숲아트센터 02-2289-5401 www.dfac.or.kr
예매 꿈의숲아트센터 www.dfac.or.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꿈의숲아트센터
개관6주년 페스티벌

Piano and Strings

PROGRAM

10.10. sat pm6:00

Maestro 금난새

10.11. sun pm6:00

Cellist 송영훈

10.17. sun pm6:00

Pianist Lucas & Arthur Jussen

10.18. sun pm6:00

Violinist 김수연 & Guitarist 박종호

상기 일정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10 sat 6:00pm —

클래식으로 행복을 선사하는 무대 위의 나는 새

Maestro 금난새



클래식은 쉽고도 즐겁다!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만드는 꿈의숲 아트센터 개관6주년 페스티벌의 첫 번째 무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금난새가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뉴월드 스트링 챔버가 펼치는 공연.

유영욱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와 뉴월드 스트링 챔버의 풍성한 선율이 가을밤을 클래식으로 질게 물들일 것입니다.

ARTIST

해설 금난새 피아노 유영욱 연주 뉴월드 스트링스

— 10. 11 sun 6:00pm —

완벽한 기교, 따뜻한 감성. 아시아의 큰 활

Cellist 송영훈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사랑 받는 송영훈이 가을의 감성을 담은 파야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과 라크스의 첼로 소나타, 브람스의 원숙미와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첼로 소나타를 들고 꿈의숲을 찾아옵니다.

피아노와의 앙상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첼로의 중후한 저음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ARTIST

첼로 송영훈 피아노 홍소유

— 10. 17 sat 6:00pm —

도이치 그라모폰, 스타인웨이가 선택한 스타 듀오

Pianist Lucas & Arthur Jussen



피아노 여제 마리아 주앙 피르스가 아끼는 아티스트이자,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 (DG)과 스타인웨이가 선택한 피아니스트 Lucas & Arthur Jussen.

네덜란드 출신의 스타 피아니스트 유센 형제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와 피아노의 대표 작곡가인 쇼팽의 작품으로 88개의 건반 위를 날아다니며 네 손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호흡과 열정적 무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ARTIST

피아노 루카스 유센 아르투르 유센

— 10. 18 sun 6:00pm —

진지함 속에 숨겨진 폭발적 테크닉의 무대

Violinist 김수연 & Guitarist 박종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차세대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주목한 김수연과 한국 클래식 기타의 미래라 불리는 박종호의 만남.

김수연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기타와의 환상적 하모니를 보여줄 파가니니 곡으로 준비한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테크닉과 팔색조 같은 매력적 연주가 더해져 꿈의숲 아트센터의 개관6주년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해 줄 것입니다.

ARTIST

바이올린 김수연 기타 박종호 피아노 김지연